

초보 행정가 우려 씻고 상생·변화·혁신 싹 틔워

‘격랑 2014’ 이슈 진단

② 민선 6기 출범

시민단체 출신 광주시장과 4선 국회의 원 경력의 전남지사가 민선 6기를 힘차게 열었다. 이들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어깨를 감싸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해서는 과거 민선 5기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경직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가치를 던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지역 내 논쟁과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초보 행정가 우려 불식은 성공...시의 회 등과의 소통 부재는 과제=민선 6기 첫 해인 올해 광주시의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신규 사업(비)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시는 내년도 국비로 올해보다 6.0%가 늘어난 1조6854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신규사업(비)은 전년보다 3

■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기지 조성

내년 국비 확보 핵심 발취

인사 잡음·소통 부재 아쉬움

배 이상 늘어난 58건(1454억원)이나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성장한 광주시장이 일부에서 제기한 ‘초보 행정’ 우려를 극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시는 또 민선 6기 출범 5개월 만에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목표를 발취했으며, 무등산을 전 세계의 명산반열에 올리기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까지 받았다.

시는 이 밖에도 추진 5년 만에 유네스코의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 가입을 이뤘

■전남도

호남권 상생 발전 주도

전임 지사 역점사업 메스

대안 제시에는 아직 미흡

내년 성과도 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미디어아트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도 현재 프랑스 리옹(2008년)·양기영 레방(2013년), 일본 삿포로(2013년) 등 3곳만 가입돼 있다.

수출 분야에서도 중남미 지역인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과 1250만 달러의 첫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LED경관조명, 의료, 미용 분야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판로까지 개척해 냈다.

스포츠에서는 시민구단인 광주FC가 열

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K리그 1부리그에 승격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동안 각종 정부 평가에서도 ‘2014 안전문화 대상 우수기관’ 선정, 개정 이래 첫 을지연습 대통령상, 환경 분야 우수 자치단체 선정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성과를 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를 비롯한 시 조직개편안, 시 산하 기관 인사,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등을 놓고 시의회와의 마찰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수에 오르내렸다는 점은 ‘욱에 티’로 남는다.

◇‘변화’에는 성공, ‘대안’은 아직=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의 성과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광주, 전남·북을 ‘상생’의 기지 아래 함께 하는데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적적함을 해소하거나 상생과제, 일정 등을 놓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지민 ‘이낙연’의 배려와 방향 제시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청년 일자리를 민선 6기의 최우선 과제

로 설정해 ‘노후’ 전남에 브레이크를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일자리정책실로 기업, 투자, 일자리, 규제를 한 데 묶어 시너지를 살렸고, 구체적인 임직이 잡힌 실질적인 투자를 연이어 터트리면서 ‘새로움’도 보였다. 초보 지사로 나선 첫 국비 확보전에서는 8번째 방지됐던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공사 재개 예산을 살려내는 등 4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보이며 올해 4조7989억원에서 5258억원이 늘어난 5조3247억원을 국고에 반영시키는 등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부담은 큰 반면 성과는 적을 것으로 분석됐던 전임 전남지사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쳤다. F1 코리야그랑프리, 사파리아일랜드, 오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도 취소되도록 개척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섰지만 주관사인 FOM과 2016년까지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은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

이 크다. 사파리아일랜드의 경우 토지 매입까지 모두 끝났지만 사업성 자체가 낮다는 평가 속에 가장 먼저 중단됐으며, 오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감사 결과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됐다.

10년간 다소 느슨해진 조직 내부를 다잡으며 이른 시일 내에 목직한 사안들을 처리해나간다는 점에서 일단 이 지사의 ‘전남 지사 6개월’의 점수는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지사의 ‘만기진림’식 업무 스타일이 조직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직 내부에 ‘이낙연의 사고’가 아직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섬과 숲을 전남의 브랜드로 내놨지만, 과거 정책 및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변화’에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대안’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건 파동’엔 침묵 중복만 문제삼은朴대통령

정의화 의장 “소통 문제” 김태호 최고 “쇄신해야” 지지율 첫 30%대 추락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과 관련,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박 대통령은 최근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중복 콘서트’ 논란을 겨냥,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복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IOC의 평창 올림픽 분산개최 움직임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3년 만에 어렵게 유지한 대화이고 각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산개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뜻을 밝혔다.

이 같이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을 다문 것은 이태초 “문건 유출은 국가 문건 행위”, “짜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과는 다른 태도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파문이 확산하면서 박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론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회의장에 입장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 국무총리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상의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 요인이나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 해주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지상 보도만 갖고 (인지)한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또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잘하겠지’, 기한 정해 ‘그때까지 다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회 소통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 매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향인식은 너무 안이하게 느껴진다”며 “청와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지난 해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2.0%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6.6%포인트 급락한 39.7%를 기록했다. 이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매주 실시해온 이 회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 수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풍문 모은 문건이 국정 흔들어” 야 “국조·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국회 현안질문 첫 날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공방

15일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비선 국정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진상 규명을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는 검찰 수사 결과가 그와 다르다 부실수사인가”라고 반문하며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소위 실세가 있었고 이권개입과 청탁이 있었다”며 “이에 비해 지금 사건은 아무 증거 없이 풍문을 모은 문건 몇 장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대통령 허락에 달린 칼 날처럼 희생양을 찾기 바빴다”며 “사건 당사자인 청와대와 검찰은 뒤로 물러서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등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의 “박지만 문건”에 대한 유출경위서가 작성됐음에도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이를 목격했다”면서 “문고리에 의해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자유투 의회 국정조사 문제로도 여야가 충돌했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 41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5조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36조원은 사업철수로 손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은 답변에 나선 최 부총리를 겨냥, ‘왜 좀 알고 나오셔야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면박을 주자, 최 부총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말하시라’고 맞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야당에서는 MB 정부의 대표적 지원외교 실패사례로 꼽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투자는 최경환 장관 취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나투어

www.HanaTour.com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 ~ 20:00(연휴무휴)

상당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리치투어 062)431-0102
가림여행사수업점 062)955-5230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겨울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향

출발일	1/1 (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항공	1	2	3	4	5	6	7	8
호텔	11	12	13	14	15	16	17	18
식사	19	20	21	22	23	24	25	26
쇼핑	27	28	29	30	31			

출발일 1/1 (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p>AAGPT1-OK1 9999 방콕/파티아 5일</p> <p>● 상품가격 1,014,800원 ~</p> <p>항공기종 ▶ 에어아시아항공 830 신석항공 포함</p> <p>호텔 ▶ 프라자 호텔 4박</p> <p>식사 ▶ 1인당 10,000원 12인 특수 ▶ 1인당 5,000원 12인</p>	<p>AAGPT1-OK2 9999 방콕/파티아 5일</p> <p>● 상품가격 1,314,800원 ~</p> <p>항공기종 ▶ 에어아시아항공 830 신석항공 포함</p> <p>호텔 ▶ 프라자 호텔 4박</p> <p>식사 ▶ 1인당 10,000원 12인 특수 ▶ 1인당 5,000원 12인</p>
---	---

출발일 1/1 (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p>AAGPT1-OK3 9999 방콕/파티아 5일</p> <p>● 상품가격 1,464,800원 ~</p> <p>항공기종 ▶ 에어아시아항공 830 신석항공 포함</p> <p>호텔 ▶ 프라자 호텔 4박</p> <p>식사 ▶ 1인당 10,000원 12인 특수 ▶ 1인당 5,000원 12인</p>	<p>AAGPT1-OK4 9999 방콕/파티아 5일</p> <p>● 상품가격 1,453,900원 ~</p> <p>항공기종 ▶ 에어아시아항공 830 신석항공 포함</p> <p>호텔 ▶ 프라자 호텔 4박</p> <p>식사 ▶ 1인당 10,000원 12인 특수 ▶ 1인당 5,000원 12인</p>
---	---

지역별 추천 히니문 상품

<p>AGPT1-OK1 오아후 6일 하리온 와이키키</p> <p>● 상품가격 2,679,100원 ~</p> <p>항공기종 ▶ 에어아시아항공 830 신석항공 포함</p> <p>호텔 ▶ 12월 - 12월/12월/12월 식사 ▶ 1인당 10,000원 12인 특수 ▶ 1인당 5,000원 12인</p>	<p>AGPT1-OK2 오아후 6일 하리온 와이키키</p> <p>● 상품가격 3,901,200원 ~</p> <p>항공기종 ▶ 에어아시아항공 830 신석항공 포함</p> <p>호텔 ▶ 12월 - 12월/12월/12월 식사 ▶ 1인당 10,000원 12인 특수 ▶ 1인당 5,000원 12인</p>
--	--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